

국민 10명 중 9명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필요”

중기중앙회, 국민 1000명 대상 인식 조사 94.5%, 납품단가 제값 못받는 현실 ‘불공정’

국민 10명 중 9명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중소기업들이 납품단가 제 값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재가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해주는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제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납품단가 연동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 국민의 97.9%는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납품거래 환경 구축이 경제 성장에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대·중소기업간 거래 시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제값을 못 받는 현실에 대해 국민의 94.5%는 ‘불공정하다’(매우 불공정 41.5%·불공정 53%)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정한 납품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응답자 가운데 일정부분 정부 역할 수행

이 ‘필요하다’(매우 필요 51.5%·필요 43.3%)는 응답이 94.8%로 조사됐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국민의 95.4%가 ‘필요하다’(매우 필요 43.5%·필요 51.9%)고 응답했다. 그 이유(중복응답)로는 ▲공정거래 환경 조성(53.6%) ▲상생협력 문화 조성(38.1%) ▲납품단가 제값받기에 도움(29.2%) 순으로 드러났다.

바람직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방식에 대한 의견으로는 88.7%가 최소한의 주요 조건들은 법제화(주요 조건 51.4%·모든 조건 37.3%)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는 ▲‘주요조건들만 법으로 정하고 세부사항은 자율로 정해야 한다’(51.4%) ▲‘원자재 종류, 연동조건 등 모든 조건들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37.3%) ▲‘모든 조건들을 기업간 자율로 정하는 방식’(9.5%)로 조사됐다.

양찬희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원자재값 급등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의 납품대금 제값받기가 어려운 불공정한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함께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납품단가 연동제를 기업간 선의나 자율에 맡길 경우 한계가 있는 만큼, 여야가 민생법안으로 합의한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이 국회 민생특위를 통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승호 기자



이마트24, 꼬모 와인 신상품 출시… 이달 초특가 와인전 개최

이마트24가 와인 브랜드 ‘꼬모(COMO)’의 신상품을 출시하고 9월 내내 초특가 와인 행사를 진행한다. 이마트24는 신상품 ‘꼬모 리슬링’을 판매한다. 꼬모(COMO)라는 이름은 ‘Convenient Moment(컨비니언트모먼트)’의 줄임말로 와인을 즐기는 가장 편안하고 적당한 순간을 의미한다.

2020년 7월에 이마트24가 첫선을 보인 꼬모는 전통적인 와인 산지로 유명한 프랑스와 이탈리아, 칠레 등 다양한 국가의 와인을 합리적인 가격(6900원, 9900원)에 즐길 수 있도록 기획했고 와인 초심자부터 애호가까지 모두의 호응을 얻고 있다.

‘꼬모 리슬링’은 독일 라인헤센에서 가장 역사 깊은 와이너리 레오나르도 커리쉬에서 선보이는 화이트 와인(9900원)이다. 달콤한 맛이 상큼한 피니쉬로 이어져 리슬링 와인 애호가뿐 아니라 입문자 또한 기분 좋게 마실 수 있다. 알코올 도수는 9.0%이다.

이마트24는 꼬모 리슬링 출시와 함께 ‘9월 이달의 와인’ 할인 행사로 와인 고객 잡기에 나선다. 9월 말까지 ‘투스씩점퍼 와이드브로 멜로-샤도네이’(9900원), ‘투스씩점퍼 황소 까바 리제 트라’(1만4900원), ‘마두아 말보코 피노누아-소비뇽블랑’(2만원)을 할인 판매하고 이달의 프리미엄 와인으로 ‘텍스트루브 까베네소비뇽’을 5만8000원에 선보인다.

오유나 기자



네스카페, 가을맞이 신제품 ‘수프리모 라떼’ 3종 출시

네스카페가 가을을 맞아 신제품 ‘수프리모 라떼’ 3종을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네스카페 수프리모 라떼 3종은 전문가들이 엄선한 일두로 로스팅한 커피에 신선한 우유를 더해 최적의 맛 밸런스를 구현해낸 프리미엄 라떼다.

신제품은 ▲더블 데카당스 라떼 ▲솔티드 카라멜향 라떼 ▲디카페인 라떼 3종으로 선보인다.

더블 데카당스 라떼는 ‘데카당스(Decadent)’의 사전적 정의처럼 가장 퇴폐적인 커피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진한 커피의 맛과 크리미한 부드러움을 담아낸 제품이다. 비스킷향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이국적인 맛을 낸다.

솔티드 카라멜향 라떼는 솔티드 카라멜의 풍미와 진한 우유 거품이 주는 깊은 바디감이 특징이다. 디카페인 라떼는 자기 전에도 부담 없이 마실 수 있고 풍부한 우유 거품으로 라떼 특유의 부드럽고 깊은 맛을 즐길 수 있다.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오는 13일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네이버 쇼핑 라이브를 진행한다. 사전 기대평을 작성하고 라이브 방송에 접속한 시청자 5명을 선정해 네스카페 수프리모 더블 데카당스 라떼(30입)를 증정한다.

최이슬 기자



쿠팡, ‘가을 펫페어’ 진행 와우회원 한정, 추가 할인

쿠팡이 반려동물용품들을 새로 장만하는 고객들을 위해 ‘가을 펫페어’를 오는 14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선 환절기에 필요한 인기 반려동물용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인다.

이런 행사에선 환절기에 필요한 인기 반려동물용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인다. 쿠팡 와우회원이라면 한정특가 혜택에 더해 추가 할인 혜택을 받는다. 3만원 이상 구매 시 3000원, 6만원 이상 구매 시 9000원, 10만원 이상 구매 시 2만원 상당의 구매 금액대별 할인쿠폰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펫페어를 위해 하림펫푸드, 뉴트리나, 당동펫, 브리지태일, 더주소, 채널펫 등 인기 반려동물용품 브랜드들이 참여한다. 별도의 브랜드관에선 각 브랜드별 신제품부터 인기상품까지 다양한 상품을 간편하게 검색 가능하다. ‘명절 연휴준비’ 테마관은 추석을 맞아 강아지용 한복을 비롯해 연휴 동안 반려동물과 여행을 떠나는 고객을 위한 여행 준비 상품을 마련했다.

뉴스스

“SK·현대차·LG 이어 삼성까지”…4대 그룹 친환경사업 ‘속도전’

친환경 분야 사업 투자 가속화

국내 주요 기업들이 생존 전략 중 하나로 ‘친환경 사업’을 꼽고 투자를 늘리고 있다. SK·현대차·LG에 이어 삼성까지 RE100 가입을 예고하며 국내 4대 그룹 모두 대테너지·클린테크 등 그린사업에 뛰어들 전망이다.

6월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전환·사용을 약속하는 글로벌 캠페인 ‘RE100’ 가입을 시사했다. 삼성전자는 조만간 RE100 가입 선언과 함께 지속가능경영과 관련한 중장기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중희 삼성전자 부회장은 독일 베를린에서 진행된 ‘IFA 2022’ 기자간담회에서 “(지속가능경영과 관련해) 실현 가능하고 달성 가능성이 뚜렷한 것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RE100 가입 여부는) 큰 비전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삼성은 제조계열사·금융계열사 별도 탄소중립 계획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제조계열사는 삼성물산·삼성전자가, 금융계열사는 삼성생명·삼성화재가 각각 로드맵을 짜고 있다. 해당 계획은 삼성 안전환경연구소와 삼성경제연구소(SERI)가 전략을 뒷받침한다.

SK도 향후 5년간 전기차·배터리 등 친환경 사업에 67조4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2030년 기준 전세계 탄소 감축 목표량(210억톤)의 1%인 2억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기차 배터리 및 배터리 소재·수소·풍력·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미래산업에 집중 투



그린피스 관계자들이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동아시아 주요 ICT 기업 RE100 모의 경주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자한다는 방침이다.

SK는 최대원 회장의 ESG 경영 강화 지시에 따라 최근 베트남, 싱가포르 등 친환경 기업 지분 투자 등에 이어 동남아 친환경 시장 진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SK는 전날에도 말레이시아 국영 에너지기업 페트로나스의 친환경 사업 자회사 젠타리(Gentari)와 친환경 사업 협력을 약속하고 수소, 연료전지, 전기차 충전 등 분야에서 사업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4월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등 4개 계열사가 RE100 이니셔티브 가입을 승인 받았다. 향후 주요 사업장에 태양광 패널을 배치하는 등 직접 행보에 나설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5월 미래 성장의 핵심축인 전동화 및 친환경 사업 고도화에 주력을 위해 현대자동차·기아·현대모비스 3사가 총 16조 2000억원을 투자한다.

현대차그룹 3사는 순수 전기차를 비롯해 수소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 전동화 및 친환경 전 분야에서 기술 우위를 확보할 방침이다.

LG그룹은 주요 계열사를 중심으로 RE100에 가입하며 친환경 사업 보폭을 넓히고 있다.

LG는 바이오 플라스틱·탄소 저장 기술 등 친환경 기술 분야에 2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발표했다. LG는 ‘클린테크’ 분야를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클린테크는 에너지와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 발생을 낮추는 기술을 일컫는 용어다.

LG이노텍은 지난 7월 RE100에 합류했고,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4월 국내 배터리업체 중 처음으로 가입을 결정했다.

LG전자도 최근 반기보고서를 통해 지난 6월 ‘RE100 이니셔티브 가입 신청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김재현 기자

GS25 “추석에도 반값 택배 서비스 운영”…연중무휴 발송

명절 기간 반값 택배 매년 신장 추세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추석 명절 기간에도 반값택배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반값택배는 고객이 GS25 점포에서 택배 발송을 신청하고 수령자가 GS25 점포에서 찾아가는 택배 서비스다.

접수, 배송, 수령까지 모든 서비스가 GS25의 물류 배송망 및 자체 인프라를 통해 이뤄진다.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 특성으로 인해 일요일을 포함한 휴일에도 접수 및 배송되는 등 국내에선 유일하게 365일 24시간, 연

중무휴로 운영된다.

택배 수가 후 상품 수령까지 평균 1일에서 3일이 소요되나, 일반 택배가 휴업하는 기간에도 발송이 가능해 보다 빠르게 상품을 받아볼 수 있다.

가격 또한 최소(500g 미만) 1600원부터 최대(5kg) 2300원으로 일반 택배 대비 최대 60% 이상 저렴하다.

연중무휴 서비스가 알려지면서 실제 명절기간 GS25의 반값택배 주문건수는 많아지고 있다. 지난해 추석기간 GS25 반값택배 주문건수는 전년 추석기간 대비 257% 이상 늘어났다.

한편 GS25는 오는 30일까지 ‘지구를 지키는 착한 택배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 GS포스트박스 회원 대상으로 진행되며, 퀴즈의 정답을 GS포스트박스 홈페이지 내 댓글로 입력하면 된다. 경품은 재활용 자재 소평백인 ‘카인드백’과 ‘반값택배 할인쿠폰’이 지급된다.

전병준 GS25 서비스기획팀 MD(매니저)는 “국내에서 최저 가격이자 유일무이한 연중무휴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는 GS25의 반값택배는 일반택배 휴업 기간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한다”며 “올해도 전년 대비 3배 이상 신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반값택배는 자체 물류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잦은 배송으로 인한 탄소 배출도 절감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선욱 기자

위니아, 님채 1000만대 생산 기념…‘보상 판매’

5만원에서 최대 20만원 상당

위니아가 김치냉장고 ‘딤채’ 1000만대 생산을 기념해 고객 사랑에 보답하는 ‘1000만 님채 감사 대축제’를 실시한다.

6일 위니아는 9월 한 달간 제조사에 상관없이 기존 사용 중인 구형 김치냉장고를 반납하고 23년형 님채 신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소비자 보상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매 장소와 제품 모델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20만원 상당의 포인트, 캐시백, 모바일 상품권 등을 증정한다.

또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된 리콜 대상 김치냉장고 뚜껑형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는 리콜 보상판매를 실시한다.

리콜 제품을 반납하고 님채 2도어 이상 제품을 구매하거나 위니아 프렌치 냉장고를 구매하면 구입처와 제품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10만원 상당의 혜택을 추가 제공한다.

위니아는 2023년형 님채 신제품의 주요 기능과 연계한 사은품 증정 행사도 실시한다. 전국 팔도 김치 맞춤 숙성 기능과 과일주&과일청 등의 숙성 보관 모드가 탑재된 스탠드형 신제품을 구매하면 숙성과 보관에 도움을 주는 밀폐용기를 증정한다.

이슬비 기자